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5년 1월 발행 (제 57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100엔 (배송료 포함 200엔)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권두 메시지 '오르난의 타작 마당' 예레미야

◎간증 '기도에 대해 배운 것 (2)' E3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오르난의 타작 마당' by 예레미야

이번에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1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구약 시대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은 장려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신약의 하나님의 집, 교회의 형태이기도합니다.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해 배우고, 또한 신약의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해 배우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장소에 지어진 것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집 교회로 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진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어떤 곳일까요 있습니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15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여기에는 다윗이 죄를 짓고 그 것 때문에 재앙이 예루살렘에 내린 것을 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은 천사를 통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었다."일이 쓰여져 있습니다. 즉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천사 의한 재앙이 내리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비유 해 말하면, 높이 30m 가 넘는 전대 미문의 쓰나미가 온다 해안처럼 위험한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 '심판'가 바로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작 마당'이라는 말도 암시입니다. "타작 마당"은 수확 한 보리를 치는 곳이며, 또한 보리와 껍질을 구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타작 마당'은 다음과 같이 심판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심판'을 의미하는 비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야기의 자세히 살펴 봅시다.

역대상 21:16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21:17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21:18 ○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서 다윗은 백성을 멸 천사와 관련하여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백성의 죄를 대속, 중재 사람, 즉 그리스도의 형태입니다. 더욱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사서 있습니다.

21:22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불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불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21:23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종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21:24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21:25 그 기지 값으로 금 육백 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이 재앙의 장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 흘린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을 매입 한 (구속 된) 그리스도를 통한합니다.

21:26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1:27 사자를 명하시매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마련했다. 그 결과 재앙을 내리지 사정 몸의 검을 가지고 있던 천사는 그 칼을 칼집에 담았습니다. 즉 재앙이 예루살렘에 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때 세워진 제단 나중에 이곳에 세워질 성전에 통합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천사의 재앙을 세우는 것에 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병행 기사 인 사무엘 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24:25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제단에 바치는 다윗의 기도에 의해 다른 재앙은 이스라엘 나라에 미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제단은 쓰나미를 방지 제방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후에 이 같은 장소에 세워지게 성전에 통과합니다. 즉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는 백성에게 임할 홍수와 같은 재난을 방지 방파제와 같은 역할이 그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의 의미의 중심은 자신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 백성의 죄를 대속 한 (매입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기도입니다.

<모리아 산>

그런데 처음 구절에는 또 다른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역대하 3:1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것은 성전 하나님의 집이 모리아 산에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모리아 산"이라 함은 다음의 유명한 구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2: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친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의 형태이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쳤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진 위치를 통해서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중요한 의미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 중 하나는 성전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말한 것 같이 사람에게 내려지는 천사의 재앙을 막는 방파제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재앙을 고쳐 생각 자제 것입니다. 그 이유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죄가 이 수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에는 이러한 의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단순히 구약의 성전에 관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또한 신약의 하나님의 집, 교회에 관해서도 통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도 '오르난의 타작 마당'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날>

그런데, 이와 같이 다윗의 때에 예루살렘에 임하려고 한 재앙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세울 수 있으며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그 성전이 무너지고, 또한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하는 날이 왔습니다. 다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9:41 ○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19:42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19:43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19:44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의 붕괴 날은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40 년 후, 구체적으로는 기원 70 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의 멸망 천사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하고,이

마을의 마지막 한 명까지 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은 역시 로마에 의해 이때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과 같습니다.

24: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4: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신전 인 성전의 붕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르난 구절에서 보고 드렸듯이, 해일과 같은 천사의 재앙을 하나님의 성전 인 성전이 방파제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궁이 그 본래의 기능을 종료하고 붕괴했을 때, 예루살렘도 함께 천사의 재앙 아래에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같은 재앙에 있던 이유도 분명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희생하시어 일부러 보내신 독생자를 거절하고 죽인 때문에 구속도 하나님과의 평화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다음 2 가지를 배울 것입니다.

① **해일 같은 재앙을 가져 오려고하는 천사를 세울 성전의 존재**

② **그 성전이 붕괴 할 때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 마을 인 예루살렘을 공격**

<천사의 재앙은 종말의 날에 재현>

그런데, 종말에 대해 이야기 계시록을 읽을 때 느낄 수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은 천사를 통해 내려진다 많은 재앙에 대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7:1 이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8:6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7 저희가 물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15:1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처럼 이 책에는 많은 천사를 통해 내려지는 재앙에 대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 계시록의 큰 특징입니다. 다른 이 같은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있어서 계시록에 기록 된 많은 천사의 재앙 그것은 방금 전의 오르난의 위치에 통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말의 명백한 특징, 그것은 종말의 날에 멸망 천사를 통한 재난이 빈번하게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날이라고 말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의 비유로 말하면 모든 방파제가 붕괴 결과, 해일의 모든 재앙이 제한 없이 주민에 임할 때와 같은 것입니다. 해일이 남아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붕괴>

그날 재해를 남기고 방파제 같은 존재 인 하나님의 성전 신약의 교회는 붕괴하고 기초석 하나도 남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통해서 재앙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님은 마태 복음 24 장에서 종말의 날과 관련하여 궁 성전의 붕괴를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이중 사본과 같이 2 단계에서 성취합니다. 즉 첫 번째 성취는 서기 70 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붕괴의 날 성전 붕괴는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취는 종말의 날이며 그 날 하나님의 집이며, 기도의 집이어야 교회는 붕괴합니다.

그것은 물리적 붕괴를 말했다 것도 아니고 전 세계의 교회 건물이 붕괴하는 것을 예언되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의 집, 하나님과 그리스도 뛰어난 장소로 성전이어야 교회가 본질적으로 교리 적으로 붕괴하고 배도하는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구조와 토대는 물리적 돌이나 벽돌이 아니라 반대로 사도들과 선지자입니다.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의 토대가 무너지게 되는 날을 예언하고 **"여기에 돌이 무너져 않고 쌓인 채 남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사도 인 바울과 베드로의 가르침이 제거되는 날, 어쨌든 구석의 머릿돌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마저 교회에서 제거 될 날을 예언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승인하도록 지금 세상에서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다빈치 코드는 그리스도가 결혼 한 자녀도 있었다 등의 거짓말 마코토 해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뒷받침 같은 "고고학 발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은 말도 안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을 진정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도 이런 모독적인 허구를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음의 말처럼 배교가 전 세계의 교회에 일어난 오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는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는 성경의 복음서의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의 이야기는 엉터리 다 그리스도는 사기꾼이며, 성경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리턴하지만 이 같이 종말의 날의 교회는 그 토대 교리도 가르쳐도 완전히 붕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의 성전 인 교회가 붕괴 할 종말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많은 천사 재앙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옛 날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지어진 성전은 천사가 가져다 재앙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을 지켰습니다. 또한 모리아 산에 지어진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백성의 죄를 속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하나님의 성전 인 교회는 붕괴하고 그 근본이며 모서리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는 밖으로 쫓겨 있습니다. 또 교회의 아무개가 그리스도의 신성도 동정녀 탄생도 부활도 믿지 않고, 그리스도 구속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 인 교회가 붕괴, 해일을 막기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가 붕괴함으로써 결과 천사를 통해서 재앙이 홍수처럼 끝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요한 계시록에 예언 된 7 개의 나팔 천사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과 7 개의 재해가 교회와 배교의 하나님의 백성을 습격하는 날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교회의 배교와 붕괴와 천사가 가져 오는 재앙과 세트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에 많은 천사를 통해서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그 근본 원인 첫째 원인은 먼저 성전, 즉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의 붕괴하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을 봅시다.



거짓을 유포하는 다빈치 코드

간증 '기도에 대해 배운 것 (2)'

오래전의 일이지만 2010 년 6 월호에서 "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 11 월의 토요일 모임에서 요한 복음 9 장에서 "기도는 듣는 '라는 주제로 따라 예레미야 목사가 말씀하고 있었으므로 그 때 가르쳐 주신 얘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걸음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군요? 그리고 그것은 관해서 소중한 말씀을 받았으므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경 구절을 살펴 보자.

요한복음 9:30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9:31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9:32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9:33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한때 나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주신다, 생각

습니다. 그러나 31 절에 **"죄인의 말은 들으시면 안됩니다"**라고 있습니다 있도록 우리 측에 "죄"가 있다는 때 기원에 따라 수 없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기도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 "기도"가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도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의기도는 무엇이든 물어보실 것 같은 생각이 있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하게 **"죄인의 말은 들으시면 안됩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것에 대해 이런 일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이가 이런 부탁을 아버지인 당신에게 합니다.

"나는요, ○○ 가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라고. 부모님이면 자녀 애교에 넘어가면 당연히 먹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아버지는 조건을 자녀에게 표시합니다. "좋아, 알았다. 하지만 말이야, 그 전에 학교 숙제를 끝내거라. 그리고 나서 가게에 가자"라고.

그 것을 들었다 아이는 "응, 알았어,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숙제를 할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텔레비전 만화에 열중해서 좀처럼 숙제에 내려 오게 하지 않습니다. 빨리 30 분이 경과하고 2 시간이지나 주위를 보면 흐리게 하고 슬슬 저녁을 맞이하는 무렵이었습니다. 그 동안 아이가 책상에 머리 기색은 전혀 없고... 그러나 아이는 갑자기 일어나서 "아, 그렇다. 아빠, 아까

아이스크림을 먹으려 싶다고 말했지만, 기억 나? 저녁 밥을 먹기 전에 데려가! "라고 말해지면 아버지 인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어린이에 대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 이번에는 위탁이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 이신 하나님도 동일 하나님이 알려져 있는지에 따르지 않는다는 때 기도를 들어 주실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영의 자녀 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들어주고 싶다! 라고 생각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말은 들으시면 안됩니다"**말씀에 이어 **"누구든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 주신다"**는 것이 알려져 합니다. 만약 기도에 따라 주셨으면! 생각한다면, "뜻을 행하는"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죄"가 있으면 그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뿐만 아니라 **"뜻을 행하는 것"**을 실천하는 데에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두 우리가 충족 시키면 기원에 따라 있어요! 매표사 이 부분은 알려져 있는 것처럼 생각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따라서 만약 죄가 있다면 먼저 죄로부터의 해방을 간구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이 안쪽 말했다 주시는 목소리에 그때마다 대응 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도에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그것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우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요한 복음에 **"너희가 내게 머물러 나의 말을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의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해 그것이 이루어 수 있습니다."**(요한 복음 15 장 7 절)이라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거하면 ~ 너희를 위해 그것이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듯이, 말씀에 체재, 즉 말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여기서도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만족한다"**고 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 주시는 위해 죄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해 나갈 것을 늘 노력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괜찮다면 이러한 것을 꼭 실천하고 갑시다. 그리고 신에게 차례 차례로 기도를 듣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가 있기를 빕니다.